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1인 2역 박보영

# “미지·미래 둘 다 제 모습”

“특히 더 마음 갔던 캐릭터는 미지...비슷한 인생경험 공감”  
“쌍둥이 역 부담이었지만 도전...연기자로서 한 단계 도약”

배우들에게 있어 1인 2역은 '양날의 검'에 비유되고는 한다. 같은 얼굴로 다른 두 인물을 표현해내는 연기는 찰나의 표정과 눈빛 같은 한 곳의 디테일에 좌우되기 때문에 난도가 높지만, 잘 해내기만 하면 연기자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영을 앞둔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1인 2역 연기 중에서도 특히 연기하기 까다롭다는 일관성 쌍둥이 역에 도전한 박보영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보란 듯이 연기력을 입증해냈다.

최근 서울 강남구 BH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박보영은 “몰랐으니까 용감하게 도전했는데, 어떻게 촬영하는지 이상 다시는 (다시 도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대본이 너무 욕심나서 일단 질러놓고, 계속 부담감에 시달렸던 것 같다”며 “첫 촬영 전날에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촬영 중에도 무수한 고비를 느끼며 실패를 경험했다. 촬영 마지막까지도 계속 물음표가 남아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미지의 서울'은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는 동생 유미지와 책임감 강한 완벽주의자 언니 유미래 역을 맡은 박보영은 두 쌍둥이, 그리고 유미지인 척하는 유미래와 유미래인 척하는 유미지까지 총 네 가지 모습의 캐릭터를 표현해냈다.

박보영은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 두 인물을 너무 다르게 표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디테일로 두 캐릭터를 구분 짓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제가 가족들이랑 말할 때, 내지는 혼자 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제 목소리로 연기했고, 미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연기할 때 자주 쓰는 목소리로 연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와 미지 중에, 연기하면서 특히 더 마음이 갔던 캐릭터는 미지라고 한다.

박보영은 “저도 살면서 인생에서 실패와 낙담을 경험해봤고, 미지와 비슷하게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와닿는 대사가 많았다.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대사들은 다시 메모해놓기도 했다”며 휴대전화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왜 인간은 자기를 가장 지켜야 할 순간에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까?”라는 대사가 좋았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멀었다”는 대사도 너무 좋아요. 미지가 할머니한테 울면서 ‘나한테 남은 날이 너무 길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라고 말하는 대사가 공감됐던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나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는 첫 회 시청률 3.6%로 출발해 일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10회에서 7.7%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으로 데뷔한 박보영은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힐렌어 자 도봉선', 영화 '과속스캔들', '늑대소년', '너의 결혼식'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배역마다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매력을 불어넣는 덕에 나이 서른을 넘긴 지금까지도 박보영과 '러블리'를 합친 '보블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생존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중증 우울증 환자 ('정신병동에 아침이 와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간호사 ('조명가게') 등을 연기하는 등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고 있다.

박보영은 “배우로서 너무 하나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작품을 보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작품을 한동안 택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차기작 '골드랜드'는 또다시 무서운 장르물이지만, 다음에는 다시 밝은 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 2년 동안 제가 너무 차분해졌다는 걸 느껴서 힘들다”고 웃어 보였다. /연합뉴스

## JTBC, 금요 드라마 편성

7월 18일부터 '착한 사나이'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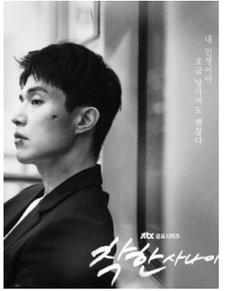
JTBC가 이동욱·이성경 주연의 감성 누아르 드라마 '착한 사나이'를 시작으로 금요 드라마 편성에 나선다. JTBC는 다음 달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드라마 '착한 사나이'를 방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JTBC가 금토 드라마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평일인 금요일 하루만 '금요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를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부터 드라마 2회분을 연달아 방송할 예정이다.

'착한 사나이' 종영 후에는 다른 작품을 같은 시간대에 편성해 금요드라마 체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착한 사나이'는 소설가를 꿈꿨던 건달 박석철(이동욱 분)과 첫사랑 김미영(이성경)의 뜨거운 사랑을 담은 감성 누아르다.

영화 '파이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송해성 감독, 드라마 '인간실격'의 박홍수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극본은 '파랑새는 있다', '서울의 달'의 김운경 작가, 영화 '야망'의 김효석 작가가 함께 쓴다. 두 주연배우 외에도 박훈, 오나라, 류혜영, 천호진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 영혼 보는 노무사의 산재 해결기 MBC '노무사 노무진' 4% 종영

일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노무사의 좌충우돌 산재(産災) 해결 과정을 담은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4%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최종회(10회) 시청률은 4.2%(전국 기준)였다.

이 드라마 시청률은 지난 5월 30일 첫 방송 당시 4.1%로 시작했으며, 2.8%(4회)로 하락했다가 5.6%(7회)까지 오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사 노무진'은 영화감독 임순례가 처음 드라마 연출에 나서 산재와 노동환경을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계에 끼어 죽은 현장실습 고등학생, '태움'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신입 간호사, 해고 압박에 내몰린 청소 노동자, 마트에서 카트를 옮기다 쓰러진 청년 등 다양한 노동자의 모습을 조명했다.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었던 주인공 노무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재 사건 해결에 나서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1위

해외 비평가 호평·일반 시청자 혹평...평가 엇갈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이하 '오징어 게임3')이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29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파트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3'은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등 플릭스 파트들이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플릭스 파트들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톱 10' 순위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집계한다.

지난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3'이 하루 만

에 전 세계에서 1위 콘텐츠로 올라선 것은 전작의 글로벌한 화제성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넷플릭스 영어비영어권 TV쇼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나온 시즌2 역시 공개 첫 주에 곧장 TV쇼 시청 순위 1위로 올라섰고, 누적

기준으로도 '오징어 게임1'과 '웬즈데이' 시즌1의 뒤를 이어 TV쇼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또 시즌2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시즌3으로 이어지면서 결말을 궁금해한 사람들도 많았다.

다만, '오징어 게임3'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해외 비평가들은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 매긴 점수를 토대로 산정하는 토마토 지수는 83%였지만, 시청자 점수인 팝콘 지수는 51%에 그쳤다. 이 작품을 본 시청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의미다.

미국 워싱턴타임즈는 “에미상 수상작이라면 감정적인 무게감이 있는 결말을 만들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잔혹함은 더 심해지고, 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풍자는 점점 사라져간다”며 “불거리는 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